

김기문 “차기 중기중앙회장, 일 잘하고 화합할 사람 뽑아야”

(중소기업중앙회장)

제주 중소기업리더스포럼서 간담회
“경영 성과·성품 등 냉정하게 평가”
차기 회장 후보 5명 출마 의사 밝혀
내년 2월2일 선거… 운동 기간 확대
16년 회장직 마무리, 재도전 일축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자신을 이을 차기 주자로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22일 중기중앙회 제주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진행하고 있는 ‘2026년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간 중 기자들과 만나 “선거라는 것은 냉정한 심판이다. (새 회장은) 자수성가했는지, 수출을 많이 하는지, 매출은 어떤지 등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고 누구와도 화합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성품도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12월11일 선거공고를 통해 제28대 회장 선거전에 본격 돌입한다.



김기문 회장이 제주 롯데호텔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김 회장은 두 차례 연임을 통해 올해까지 총 16년(23~24대, 26~27대) 동안 중기중앙회장을 맡고 있다. 중기중앙회장은 법상 3연임은 불가능하지만 4년후엔 다시 중기중앙회장에 도전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은 재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일축했다.

김 회장은 “놀러 올 진 몰라도, 일하러 중기중앙회에 오지 않겠다고 직원들에게 이미 말했다. (회장을 하는 동안) 너무 힘들었다, 그게 솔직한 소회”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27일 밤 12

BMW iX3, 글로벌 흥행에 물량 확보전

BMW코리아, 본사와 공급 확대 협의
유럽 주문 10만건 돌파하며 인기몰이
국내 사전 예약 3개월 만에 5000건

BMW의 차세대 순수전기 스포츠유틸리티비티차(SAV) ‘더 뉴 BMW iX3’가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유럽에서만 10만건 이상의 주문을 확보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사전 예약 단계부터 수요가 물리면서 BMW코리아가 본사와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협의에 나섰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상품성을 끌어올린 전략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했다는 평가다.

22일 BMW그룹에 따르면 더 뉴 BMW iX3는 지난해 9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 2025’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 유럽에서 10만건 이상의 주문을 기록했다. 공개 이후 유럽에서 접수된 BMW 순수전기차 주문 3건 중 1건이 iX3에 집중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iX3는 유럽은 물론 국내에서도 높은 인



더 뉴 BMW iX3 정측면 모습.

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사전 예약을 시작한 뒤 3일 만에 2000건을 돌파했으며, 3개월간 약 5000건의 예약을 기록했다. 6월 국내 공식 출시 이후 7월부터 고객 인도에 들어갔지만, 글로벌 수요까지 급증하면서 국내 공급 확대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iX3는 BMW의 차세대 차량 프로젝트인 노이어 클라세를 적용한 첫 양산형 모델인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상품성을 인정 받은 것”이라

며 “본사와 생산 물량 확대를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한국 물량 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BMW는 iX3 생산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은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2월 2교대 생산 체제를 도입했다. 양산 개시 이후 수개월 만에 누적 생산 5만대를 달성하며 BMW 그룹 신규 공장 가운데 가장 빠른 생산 확대 속도를 보였다.

iX3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2026 월드 카 어워즈’에서 세계 올해의 차와 세계 올해의 전기차를 동시에 수상했으며, 영국 자동차 전문 매체들이 선정한 올해의 차에도 이름을 올렸다.

흥행의 배경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기술 혁신이 자리 잡고 있다. 800V 고전압 시스템 기반의 6세대 BMW eDrive와 파노라믹 iDrive, 주행 역학을 통합 제어하는 ‘하트 오브 조이’ 등을 적용해 주행 성능과 디지털 경험을 강화했다.

/양성운 기자 ysw@

GM, 전동화 기술·미래 모빌리티 비전 제시

대구 미래모빌리티엑스포 5년째 참가
캐딜락 대형 전기 SUV 기술력 공개

제너럴 모터스(GM)가 대구에서 전동화 기술과 차량 개발 역량을 선보이며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한다.

GM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DIFA 2026)’에 참가한다고 22일 밝혔다.

GM은 2022년부터 5년 연속 DIFA에 참가하고 있다. 올해는 캐딜락의 플래그십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2026 에스칼레이드 IQ’를 전시해 전동화 기술과 프리미엄 디지털 경험을 소개한다.

전시 공간은 ▲참여형 행사를 진행하는 이벤트존 ▲차량과 관련 콘텐츠를 소개하

는 차량존 ▲직무 상담과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컨설팅존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체험하는 바추얼 모빌리티존 등 4개 구역으로 구성됐다.

브라이언 맥머레이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사장은 지난 21일 열린 DIFA 콘퍼런스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서 인공지능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을 설명했다. 기술 성과와 함께 인간의 판단·책임, 기술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는 GM의 글로벌 사업장 가운데 미국 본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연구개발법인이다. 디자인과 엔지니어링부터 최종 차량 검증, 생산 기술까지 완성차 개발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이승혁 기자 sh95@

에쓰오일

AI로 공장 안전 강화

에쓰오일(S-OIL)이 공장 운영 데이터의 연계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한 통합 제조 운영 관리 시스템을 사한 공장까지 확대 적용했다. 기존 공장에서 축적한 디지털 운영 경험을 신규 설비에 접목해 안정적인 가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에쓰오일은 통합 제조 운영 관리 시스템 ‘S-imoms(S-OIL Integrated Manufacturing Operations Management System)’의 고도화와 사한 공장 확대 적용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S-imoms는 생산·설비·정비·검사·안전 등 공장 운영 전반의 시스템과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디지털 전환 사업이다.

/원관희 기자 wkh@

시까지다.

이번 3박4일간의 리더스포럼 기간 동안 차기 회장 후보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장 선거에는 사전 등록이 없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와서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 선거운동으로 100% 걸린다”며 “가령 참석자와 약속 및 통화를 하거나 (숙소를) 방문하면 사전 선거에 걸린다. 내가 (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유력 후보자들과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갖고 포럼에 안 갔으면 어땠겠냐고 제안했고 양해가 돼 전원 불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차기 중기중앙회장 선거에는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정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이만형 중부흡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출마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더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 회장은 방송인

탁재훈(본명 배성우)씨의 부친이다.

김 회장은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을 열흘 더 늘렸다”며 “선거일도 앞당겨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차기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내년 1월1~2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1월3일부터 2월1일까지 선거운동을 통해 2월2일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김 회장은 “(회장으로) 2007년 왔을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다만 K-자형 양극화에 대해 현 정부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내년에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10개 정도의 협동조합에서 표준 데이터를 만드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이 빠른 시간 안에 AI를 도입해야 우리나라가 AI3대 강국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영풍, 고려아연 자사주 소송 1심 패소

법원, 자사주 매수 경영 판단 인정
영풍·MBK 항소로 법정 공방 지속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로 인정한 것. 이에 영풍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2일 영풍이 최 회장과 고려아연 이사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사진들이 경영 판단에 관한 재량권을 갖고 있으며, 합리적으로 정보를 수집·검토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고 그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봤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영풍 측 공개매수를 경영권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법률 자문과 법원의 가처분 결정 등

을 검토해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결정한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또 자사주 취득 채원과 관련한 영풍 측 주장도 기각했다. 특정 목적 임의준비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한 것이 상법상 취득가액 한도 규정이나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 직후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개인의 자리 보전을 위해 고려아연을 사금 고화하고 막대한 채무를 떠넘긴 위법적 경영 행위가 이사의 재량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매입해 8300억원 이상의 실질적 손해를 입었고, 1조6000억원이 넘는 차입 부담까지 떠안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영풍·MBK 측의 주장으로 이번 1심에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이다.

앞서 영풍은 2024년 9월 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나섰다. 이에 고려아연 이사회는 같은 해 10월 주당 89만원에 자사주 공개매수를 결정하며 대대

/양성운 기자

귀뚜라미, AI 데이터센터 냉각 기술 뽐내

국제냉난방공조전서 신기술 공개
냉동공조 3사 첨단 솔루션 선보

귀뚜라미그룹이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18회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HARFKO 2026)’에 참가해 AI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시설, 원자력발전소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냉난방공조 솔루션을 선보였다. 지난 21일 개막해 23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은 냉난방공조 분야의 주요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는 전문 전시회다. 올해는 AI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냉난방공조 기술의 미래를 조명한다.

귀뚜라미그룹의 핵심 냉동공조 계열사인 귀뚜라미범양냉방, 신성엔지니어링,

센추리 등 3개사는 총 65부스 규모의 전시 공간을 마련해 각 사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공개했다.

귀뚜라미범양냉방은 데이터센터 냉각 시스템, 냉각탑, 냉동기, 송풍기 등 4가지 테마로 전시장을 구성하고,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고효율 냉각 기술을 선보였다.

신성엔지니어링은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시설 등에 적용하는 신제품 ‘무급유 터보냉동기’와 서버 냉각부터 폐열 재활용까지 연결하는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을 공개했다. 센추리는 원자력발전소 냉동기를 비롯해 공기업 히트펌프, 선박 폐열 발전 시스템, AI 기반 설비 관리 기술을 내놨다.

/김승호 기자